

숨은그림찾기 < 79 >



찾아보세요 은행원, 불링핀, 펜촉, 알파벳 A자, 열대어, 사람 옆 얼굴, 셔플룩, 뭇, 프라이팬

어떤 답안

- 문제 1. I am sorry. 답: 나는 소리다.
문제 2. Yes, I can. 답: 그래, 난 강푹이다.
문제 3. What is your name? 답: 왓이 네 이름이니?
문제 4. See you later! 답: 두고 보자!
문제 5. '아, 저 말입니까?'를 영작하라. 답: Am I a horse?



지나주 정답

바늘, 상어, 우유팩, 뭇, 점시, 열대어, 사람 옆 얼굴, 펜촉, 알파벳 A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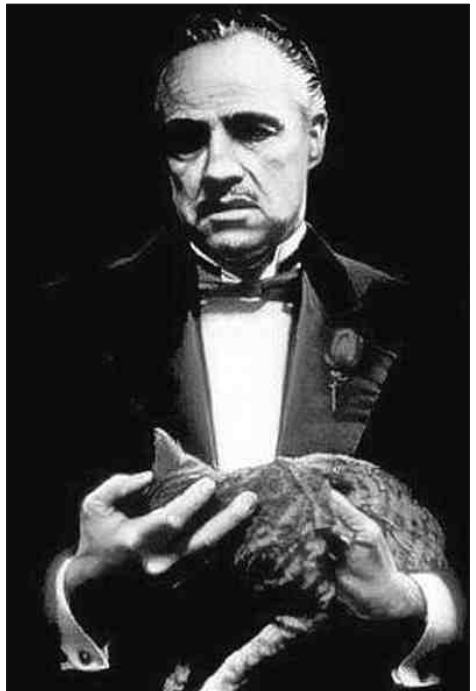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박한승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임형구 <화순군 이양면>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7월 1일 '대부' 말론 브랜도 타계

영화 '대부'의 돈 콜레오네의 얼굴로 말론 브랜도를 떠올리는 영화팬들이 많다. 카리스마적 리더로, 냉혹한 살인자인 마피아 두목에 대한 강렬한 연기 때문일 것이다.
20세기 최고의 영화배우 중 한 사람으로 꼽힌 말론 브랜도는 지난 2004년 7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서 폐질환으로 숨졌다. 향년 80세.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세계 각지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슬퍼했다.
타임 선정 20세기 최고의 배우, 한 마디 대사 없이도 스크린을 장악하는 카리스마, 영화계에서 그는 전설로 통한다.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8차례 올랐던 브랜도는 지난 1924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나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갔다가 퇴학당한 뒤 연구 배우로 데뷔했다.
영화는 1950년 '더 맨(The Men)'이 첫 작품. 이 밖에도 '대부', '파리에서의 마지막 탭고' 등에서 강렬한 캐릭터를 선보였고 모두 8차례의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두 차례 남우 주연상을 수상했다.
특히 1973년 그에게 두번째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대부'는 수많은 영화팬들이 여지껏 그를 떠올리는 대표작이다.
60년대 슬럼프에 빠졌던 그는 이 영화에서 영화사에 길이 남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또 그가 '파리에서의 마지막 탭고'와 '지옥의 묵시록'(1979)에서 보여준 강렬한 캐릭터는 영화팬의 뇌리에 각인돼 있다. 그의 연기를 닮으려는 추종자들이 생겨날 정도였다.
하지만 영화에서의 명성만큼 개인적 삶은 평탄하지 못했다. 알코올중독자인 부모 아래에서 사람받지 못한 채 자라는 등 불우하게 성장했다.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못했다. 세 번의 결혼과 이혼으로 최소한 11명의 자식을 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자유분방함' 생활을 했다. 말년에는 아들 크리스찬이 이복 여동생의 남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말마차 충격으로 자살하는 것을 지켜 봐야 했다.
아들의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으로 파산 지경에까지 이르는 등 재정난도 겪었다.
자신의 삶은 어두웠지만 그가 있어 행복해하는 팬들이 있다면 그의 삶은 성공할까.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영화 '대부'의 돈 콜레오네 역으로 유명한 말론 브랜도.

뉴스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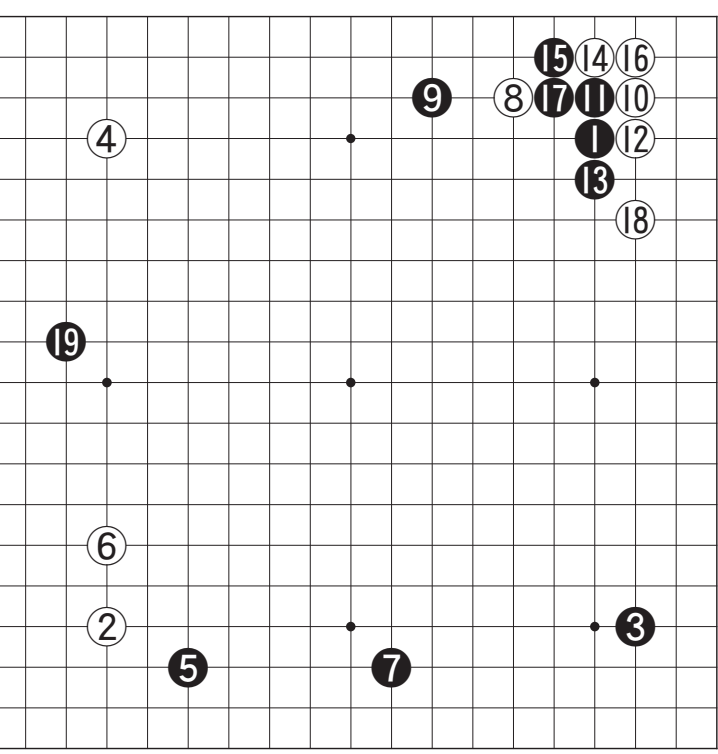
70. 세계적 여성인권 운동가와 여성학 분야 학자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26일부터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 기간에는 아프가니스탄 최연소 여성 국회의원 밀라라이 조야,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이스라엘 여성 루치마 마론, 파키스탄의 세계적 여성운동가 무크타르 마이 등 세계적 민주·인권 여성운동가 등 국내외 여성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다. 무슨 회의일까요?
①세계여성평화포럼 ②제주 평화포럼
③참여정부 평가포럼 ④정부 혁신 세계 포럼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금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7일(음 5월 13일 壬辰)

- 36년생 전회회복이나 변동으로 길사가 전개된다. 48년생 증축하는 형상이고 주변이 잘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수선하다. 60년생 부부 및 주변으로 부터 새로운 길사가 가속된다. 72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84년생 융합할 듯한 주변이 대고를 발상 시킨다. 행운의 숫자: 17, 40
37년생 부부사이에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도 있다. 49년생 중의 불협화음이 발생한다. 61년생 가정과 配人の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격정된다. 73년생 부부사이에 일출 불일 일이 많을 수도 있다. 85년생 백사가 손조로우나 조심할 것은 있다. 행운의 숫자: 03, 32
38년생 비정확한 괴로움이 최근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다. 50년생 부부사이에 이간질할 비운사들이 나온다. 62년생 이해하는 신감이 필요하고 부부간 절대 믿고 대화해야 하리라. 74년생 절제 속에 實利로 있다. 행운의 숫자: 09, 38
39년생 문서 작업으로 인해서 대외적이 중중해서 심신까지 불안하다. 51년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행하라. 63년생 타에 의한 사연과 손해가 우려 된다. 75년생 제사가 지체되고 결과를 얻지 못한다. 행운의 숫자: 11, 25
40년생 길사에 침체될 우려는 있으나 종래는 안정 된다. 52년생 신사 투자가 손해가 크니 신중하게 숙고하라. 64년생 친구 친척 간에 호사다마가 있게 되니 조심해야 하리라. 76년생 침착하게 사행하라. 행운의 숫자: 05, 34
41년생 빈 문서로 눈물이 걱정된다. 53년생 과욕과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좋으리라. 65년생 제사가 손조를 형성되리라. 77년생 예기치 못한 역습이나 손실은 있으나 걱정은 없다. 행운의 숫자: 14, 29
42년생 대 발전을 약속하고 가속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 54년생 큰 득은 좋은 마무리에 있다. 66년생 확신에 있는 무자는 삼가야 하리라. 78년생 춘분이라도 과욕하면 결과는 대 손해로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08, 39
43년생 용이 여의주를 놓고 싸우는 형상이니 스스로 패한다. 55년생 하루를 조심할 보내라. 67년생 시비 송사 구설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79년생 과욕만큼 얻을 수 있는 손해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07, 42
44년생 송사가 생겨도 승전으로 연결된다. 56년생 겨우겨우 보내는 날이 될 수도 있으니 활동하라. 68년생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니 선택을 신중하게 하라. 80년생 매사에 조심을 다해도 불만스럽게 꼬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20, 41
45년생 친구이 나타나서 事件을 해결하게 된다. 57년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다. 69년생 중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이다. 81년생 사기꾼이 주변에 많다. 행운의 숫자: 18, 34
46년생 스스로 自離하는 격이요. 58년생 가내가 시끄럽고 어수선한 형상이 발생한다. 70년생 애인과 이교교제가 있을 수도 결혼수도 있다. 82년생 특별한 협조와 좋은 인연이 된다. 행운의 숫자: 12, 30
47년생 내 것 잃고 송사 당할 수도 있다. 59년생 신병과 중도를 살려가며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 71년생 실물 사기 도난의 손해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83년생 밝은 웃음으로 주변을 관하게 하니 과시는 금하라. 행운의 숫자: 21, 43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용타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제16회 광일배 직장대항 단체 3회전
입상이 걸린 한판 제1보(1~19)
白 박명수 5단 (농협) 黑 이창준 5단 ((주)송림)

농협팀은 16회째 한번도 거르지 않고 참가하고 있는 본대회의 터줏대감이며 열성호인 그룹이다. 근래에는 다소 성적이 저조했으나 제작년 박명수 5단이 개인전에서 일약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다시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주)송림은 환경사업이 주종인 건설회사로 두번째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대표이사인 이창준 5단이 고군분투하며 연승 중이다.
이 판은 개인전 입상이 걸려있는 중요한 한판이다. 돌을 가린 결과 이창준 5단의 흑변, 요즘에는 덤이 6집반으로 커져 흑백간의 차이가 극도로 좁혀졌으나 중요한 한판에서는 아직도 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래도 주도권을 잡기가 쉬운 까닭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최근 아예 덤을 7집반으로 올려버렸다. 포석이 발달한만큼 흑의 우위를 인정할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도 이같은 흐름에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흑이 7로 미니중국식을 펼치면 백 8로는 우변을 갈라쳐 가는 것이 보통인데 박명수 5단은 급전을 피하고 싶은 것인듯 느긋하게 8로 걸쳐가고 있다. 흑 19까지는 그림같은 진행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창호 9단이 지난 25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준결승전에서 김일환 9단을 181수 끝에 흑 불계로 누르고 결승전에 선착했다.
이 9단은 중반 끝내기 단계에서 초읽기에 몰린 김일환 9단의 실착을 파고들어 승부를 마무리했다. 전자랜드배 3연패를 가시권에 두게된 이 9단은 백홍석 5단-강동운 5단의 대국 승자와 결승 3번기를 갖는다.
이 대회는 제한시간 각 10분에 초읽기 40초 3회(덤 6집반)로 진행되는 속기전이다. 우승상금은 4천500만원(준우승 1천800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935>

I have an appointment at 2 o'clock
2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A: Good morning, sir. May I help you?
B: I'm Mr. Choi from Korea. I'd like to see Mr. Wright. I have an appointment at 2 o'clock.
A: I see. Please sit down.
B: Thank you.
A: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B: 저는 한국에서 온 최 선생이라고 합니다. Wright씨를 만나 뵙고 싶은데요. 2시로 약속을 했습니다.
A: 네, 앉으십시오.
B: 감사합니다.
I'd like to ~ = I want to ~
약속시간보다 30분 늦게 왔는데요. 그를 만날 수 있습니까?
= I'm half an hour late for the appointment. Could I still see him?
아마도 예상했던 것보다 회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 I'm afraid the conference is taking longer than expected.

오하요우 니혼고 <935>

遺失物(いしつぶつ)センターってどこだっけ?
유실물 센터는 어디지?
A: あっ、しまった。駅(えき)のベンチにかばん(か)置き忘(わす)れちゃった。
B: えっ、何(なに)やってんのあんたは。
A: だって、話(わ)に夢(む)中(ちゆう)になってたから、遺失物(いしつぶつ)センターってどこだっけ。
B: 駅の窓口(まどぐち)で聞いてみたら。
A: 아빨싸. 역 벤치에 가방을 놓고 와버렸어.
B: 옛, 뭐하는 거야 너는.
A: 그럴 것이, 이야기에 몰두해 있어서. 유실물 센터는 어디지?
B: 역 창구에 물어보면.
置(お)き忘(わす)れる: 둔 곳을 잊다. 가지고 오는 것을 잊다
だ(だ)って: ~래
夢(む)中(ちゆう): 몰두함, 열중함
どこだ(どこ)っけ: 어디였지?

니하오 쥬구워 <126>

这种药怎么吃
이 약은 어떻게 먹나요
A: 这种药怎么吃?
Zhe zhong yao zenme chi?
찌 중 약오 전머츠?
B: 一天三次, 一次四粒。
Yi tian san ci, yi ci si li.
이 티엔 썬 츠. 이츠 쓰 리
A: 饭前吃, 还是饭后吃?
Fan qian chi, hai shi fan hou chi?
판 치엔 츠, 하이 스 판 후우 츠?
B: 饭前吃。
Fan qian chi.
판 치엔 츠.
A: 이 약은 어떻게 먹나요?
B: 하루 3번 한 번에 4알씩 드세요.
A: 식전에 먹어도 아니면 식후에 먹어도?
B: 식전에 드세요.
粒 [li] 알갱이를 세는 양사, 알, 톨
饭前 [fanqian] 식전
饭后 [fanhou] 식후

한자 이야기 <552>

曲學阿世(곡학아세)
굽을 곡, 배울 학, 아침할 아, 세상 세
곡학아세(曲學阿世)는 학문을 굽어 세속(世俗)에 아침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배운 올바른 학문과 지식을 올바로 펼쳐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배운 것을 굽혀 가면서 권력의 비위를 맞추어 출세를 하려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이다.
한(漢)나라 경제(景帝·B.C. 157~141)는 즉위하자 천하에 널리 어진 선비를 찾다가 산둥(山東)에 사는 원고생(輿固生)이라는 시인을 등용하기로 했다. 그는 당시 90세의 고령이었던 자인(直言)을 잘하는 율공은 선비로도 유명했다. 그래서 사이비(似而非) 학자들은 원고생을 중상 모략하는 상소를 올려 그의 등용을 결사반대 했으나 경제는 끝내 듣지 않았다.
당시에 원고생과 함께 등용된 소장(小壯) 학자가 있었는데, 그 역시 산둥 사람으로 이름이 공손홍(公孫弘)이었다. 공손홍도 원고생을 대하는 태도는 사이비 학자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원고생은 전혀 개의치 않고 공손홍에게 이렇게 말했다. "배운 것을 바르게 하여 말하기에 힘쓰고, 배운 것을 굽혀서 세상에 아침하지 말라."(務正學以言·無曲學以阿) 이 말을 들은 공손홍은 자신의 무례를 사과하고 원고생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 (儒林列傳)